발톱 세운 호랑이 두려움 없이 즐겨라

◀27일 오후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2016 타이어뱅크 KBO 리그' 프로야구 시범경기 KIA 타이거즈와 한화 이글스의 경기가 많은 야구팬이 관전하는 가운데 펼쳐지고 있다. 〈KIA 타이거즈 제공〉

KIA 2016 프로야구시범경기 성과

적극적인 베이스 공략…공·수에서 과감한 도전 늘어

유격수 김주형·2루수 필·우익수 김원섭 카드 성공적

곽정철·한기주 복귀 '천군만마'…마무리 고민은 여전

"감독으로서 만족은 없다."

KIA가 27일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한화와의 경기를 끝으로 시범경기를 마무리했다. 비와 추위로 취소된 3경기를 제외하고 15경기를 소화한 KIA는 7승1무7패의 성적표를 제출했다. 초반 타격 부진에도 화력이 살아나면서 공동 5위에 랭크됐다. 스프링캠프 연습경기에서 2승1무9패의 성적을 냈던 것을 감안하면 "캠프에 비하면 많이 좋아졌다"는 김기태 감독의 농담이 나올만한 성적이다. 김 감독은 "감독으로서 만족은 없다"고 언급하기는 했지만 "선수들의 과감성과 적극성이 늘었다. 필 2루, 오준혁 1루, 김원섭 우익수 등 카드 시험도 잘 이뤄졌다"고 시범경기를 평가했다.

◇과감해진 플레이, 한계를 넘는다 = 27일 경기에 앞서 김 감독은 전날 두 차례의 주루사가 나온 것에 대해 "가려다가 죽으니까 괜찮다"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김주형과 김다원이 폭투 때 진루를 시도했지만 발보다 공이 빨랐다. 팀에서도 알아주는 느린 발의 두 사람이지만 김 감독은 적극적인 플레이라며 미소를 지었다.

지난 시즌부터 강조했던 과감하고 적극적인 플레이가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는 점이 만족스럽다. 시범경기에서 선수들은 적극적으로 다음 베이스를 공략하고, 공격과 수비에서도 과감하게 도전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김 감독이 강조하는 부분에 부합하는 플레이였다. 김 감독은 부임과 함께 "결과는 감독이 책임진다"며 선수들에게 과감한 도전을 주문했었다.

김 감독은 "안정적으로 플레이를 하는 팀은 상위권 팀이다. 우리는 좋은 전력의 팀이 아니기 때문에 과감하게 해야 한다. 4.5대 5.5 같이 조금 확률이 떨어지더라도 우리팀은 과감하게 승부를 해야 5를 넘어설 수 있다"고 언급했다.

◇시범경기 스타, 새로운 경우의 수를 만들다 = 김 감독은 시범경기를 돌아보면서 김주형, 김다원, 곽정철, 한기주를 언급했다. 이름과 기대치는 높지만 주요 전력으로는 꼽히지 않던 선수들이다. 김주형과 김다원은 파워에 비해 세밀함이 부족해 자리를 잡지 못했었고, 곽정철과 한기주는 '부상'이라는 변수로 마운드 계산에 넣을 수 없던 선수들이었다. 그러나 김주형과 김다원은 정교해진 타격으로 타선에 힘을 더했다. 김 감독의 야심작 '유격수 김주형' 카드도 성공적으로 준비가 됐다.

곽정철과 한기주의 움직임도 반갑다. 오버 페이스를 막기 위해 대만 캠프에서부터 노심초사 준비시켰던 곽정철은 6경기에 나와 6.2이닝 1피안타 4볼넷 8탈삼진 무실점의 투구를 선보였다. 한기주도 4경기에서 10.2이닝을 소화하면서 2.53의 평균자책점을 기록했다.

이대진 투수 코치는 "부상에서 복귀한 두 선수에 대해 조심스럽게 접근했는데 생각보다 더 좋은 결과가 나왔다. 마운드 운영 폭이 더 넓어졌다"고 언급했다.

◇끝나지 않은 고민, 144경기를 내다본다 = 눈 앞에 닥친 개막전을 풀어갈 전략을 짜는 것도 중요하지만 긴 안목에서 144경기를 준비해야 한다. 가장 걸리는 것은 마무리다. 김 감독이 가장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시범경기 마지막 날까지 마무리를 지목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곽정철이 "내가 마무리다"는 피칭은 보였지만 오랜 공백이 변수다. 줄부상으로 '잠수함'의 자리도 빠진 상태.

이 코치는 "좌완, 우완, 언더 등이 강점을 가지는 타자 유형이 있지만 반드시 강한 것 만은 아니다. 컨디션이 좋은 선수, 숫자(기록)로 운영을 해나갈 생각이다"고 언급했다.

마운드에서는 복귀를 기다리고 있는 부상병들이 있다. '마무리 후보'였던 한승혁이 휴식을 끝내고 27일 하프 피칭을 소화했다. 고질적인 통증은 안고 가야 하지만 45개의 공을 무리 없이 던지며 재시동을 걸었다. 캠프의 기대주였던 사이드암 박동민도 이미 깁스를 풀고 본격적인 재활에 들어갔고, 박준표도 실전을 소화하고 있다. 김병현 등 부상으로 빠졌던 '잠수함'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타선에서는 외야수 신종길을 빼고는 눈에 띄는 부상 공백은 없다.

김 감독은 "선수들 쉼없이 달려왔는데 수고했다는 말을 가장 먼저 하고 싶다. 이제는 그동안 해왔던 것을 펼칠 일만 남았다. 두려움 없이 즐겼으면 좋겠다. 개막까지 팀 전력의 최적화를 위해 고민하도록 하겠다. 팬 여러분의 변함없는 응원 부탁드린다"고 시범경기를 끝낸 소감을 밝혔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1군에서도 뛰고 싶다

아기호랑이들, 마지막 리허설 무대서 혼신

KIA 덕아웃에서는 "도마 위의 생선들"이라는 말이 나왔다. 수장 김기태 감독은 "감독으로서는 마음 아픈 시간"이라는 표현을 썼다. 시범경기 마지막날을 앞둔 이들의 복잡한 심경이었다.

KIA는 27일 챔피언스필드에서 한화를 상대로 2016 시범경기 최종전을 치렀다. 오는 4월1일 정규시즌 개막을 앞두고 진행되는 마지막 리허설. 개막에 대한 설렘으로 최종일을 맞은 이도 있지만 '마지막'이라는 말이 무겁게 어깨를 누르는 이들도 있었다.

이날 KIA는 시범경기 처음으로 선수단에 합류한 노수광을 1번 타자 겸 중견수로 해 이호신(우익수)-이범호(지명타자)-이홍구(포수)-윤정우(좌익수)-윤완주(2루수)-고영우(1루수)-박찬호(유격수)-최병연(3루수)으로 라인업을 짰다. 타격감 조율을 위해 타석에 선 이범호를 제외하고는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선수들이었다.

타격 훈련이 끝나는 시간에 맞춰 공을 줍기 위해 대기하고 있던 이날 스타팅 멤버들 사이에서는 "도마 위의 생선"이라는 농담이 나왔다. 정해진 1군 엔트리는 27, 남은 1~2 자리를 놓고 벌이는 마지막 어필 무대라는 것을 알고 있기에 웃는 게 웃는 게 아닌 선수들이었다.

김 감독도 마무리 캠프와 스프링 캠프 그리고 시범경기까지 긴 시간 동고동락하며 땀을 흘린 이들의 운명을 결정해야 하는 게 어렵기는 마찬가지. 어찌 됐든 운명의 시간은 다가왔다.

이날 스타팅 라인업에 이름을 올린 이들은 마지막 기회를 잡기 위해 이를 악물고 그라운드를 뛰었다. 3회 노수광의 안타를 시작으로 최병연을 제외하고는 모두 안타를 기록했다. 대신 최병연은 7회 1사 만루에서 희생플라이를 때리며 타점을 올렸다.

두 개의 볼넷과 멀티 히트를 기록한 고영우는 7회 1사 1·3루에서 김호령의 짧은 좌익수 플라이 타구 때 과감하게 홈을 파고들면서 스피드도 보여줬다. 윤완주와 이호신은 좋은 수비로도 어필을 했다. 윤완주는 경기 시작과 함께 2루 베이스를 빠져나가는 정근우의 안타성 타구를 땅볼로 만들며 박수를 받았고, 이호신은 6회초 무사 1루 로사리오의 우전안타 때 3루 진루를 시도한 김경언을 레이저 송구로 막으면서 특급 보살을 기록했다.

마운드에서는 유창식, 김윤동, 홍건희가 마지막 등판 기회를 잡았다. 지크에 이어 6회 마운드에 오른 유창식은 연속 안타에 이어 연속 볼넷으로 위기를 자초, 5피안타 3볼넷 6실점으로 1이닝도 다 채우지 못하고 2사에서 교체됐다. 탈삼진으로 경기를 시작한 김윤동은 7회와 8회를 모두 삼자 범퇴로 막으며 앞선 부진을 만회했다. 9회 출격한 홍건희는 탈삼진 하나를 기록했지만 한화의 새로운 외국인 선수 로사리오에게 147㎞짜리 직구를 강타당하며 투런포를 허용했다.

한편 시범경기 최종전은 5-10, KIA의 패배로 끝났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전국소년체전 광주대표로 선발된 진흥중 학생들이 예선대회 우승을 차지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시야구협회제공〉

진흥중 야구, 전국소년체전 광주대표로

예선리그 2승1패 우승

진흥중이 광주 야구대표로 전국소년체전에 참가한다.

진흥중은 지난 24일 무등경기장에서 열린 대신육가공대표이사배 전국소년체육대회 예선대회 리그전 마지막 경기에서 동성중을 상대로 8-1, 5회 콜드승을 기록했다. 22일 대회 첫날 무등중을 10-3으로 제압한 진흥중은 두 번째 경기에서 충장중에 8-13 패배를 기록했지만, 마지막 경기에서 승리하며 2승1패로 우승을 차지했다.

대회 우승컵을 차지한 진흥중은 오는 5월 강원도 강릉에서 열리는 전국소년체육대회 광주대표자격도 얻었다. 한편 초등부 소년체전 예선은 28일부터 4월 1일까지 5일간 본량구장에서 열린다.

◇시상내역

▲최우수선수상 : 박성역(진흥중) ▲우수투수상 : 김민규 ▲타격상 : 서주형(0.625·진흥중)▲최다도루상 : 최민식(7개·진흥중)▲최다타점상 : 박성역(9타점·진흥중) ▲감투상 : 한지운(충장중) ▲미기상 : 전광진(충장중) ▲감독상 : 김승남(진흥중) ▲지도상 : 조규용(진흥중 야구부장)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일요일에 夜球

4·5·9월 일부 야간 편성

KIA 5월 1일 등 3경기

4·5·9월의 일요일은 '야구데이'가 된다.

한국야구위원회(KBO)가 4·5·9월 일요일 오후 2시 경기 중 하나를 야간 경기로 편성하는 '선데이 나잇 베이스볼(Sunday Night Baseball)'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4월 3일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열리는 두산 베어스와 삼성 라이온즈의 경기를 시작으로 총 12경기가 일요일 오후 5시로 편성됐다. KIA 타이거즈는 5월1일 두산과의 홈경기, 5월8일 넥센 히어로즈와의 원정경기, 9월11일 kt 위즈와의 원정경기 등 3경기를 선데이 나잇 베이스볼로 치른다.

KBO는 지난해부터 팀 당 경기수가 144경기로 늘어난 것에 맞춰 경기 시간을 다양화해 팬들이 보다 많은 경기를 관람·시청할 수 있도록 하고, KBO 리그 활성화를 위해 특별 야간경기를 편성해 왔다.

/김여울기자 wool@

KIA 응원단 보강…치어리더 3명 추가 영입

KIA 타이거즈가 '더 뉴 타이거즈(The new tigers) 응원단'을 구성했다.

KIA가 2016시즌 열정적인 응원을 이끌어갈 응원단을 보강, 개편했다. 치어리더 3명이 추가로 투입되며, 홈 경기에서는 치어리더 8명 중 3명이 돌아가며 배트걸 역할을 수행한다.

지난 시즌부터 응원단을 이끌고 있는 나윤승 응원단장은 올 시즌에도 관중석에 활기를 불어넣는다. 재치있는 입담으로 사랑을 받고 있는 'MC 이슈'도 계속 마이크를 잡는다.

치어리더 진용도 새로 갖춰졌다. 177cm의 훤칠한 키에 가수 유이를 닮은 외모로 화제가 된 치어리더 겸 모델 류세미씨와 농구단 치어리더로 활동했던 추연지씨가 프로야구 응원단에 첫 발을 내딛는다. 두 사람은 최근 KIA와 대한치어리딩협회 광주시지부가 공동으로 진행한 치어리더 공개 모집 프로그램을 통해 선발됐다. 171cm의 키에 매력적인 미소가 돋보이는 윤영서씨도 더 뉴 타이거즈 응원단에 합류했다. 이외에 김맑음, 김민선, 이지은, 김청, 최미진 치어리더가 올 시즌에도 KIA 응원단상에 선다.

'더 뉴 타이거즈 응원단'은 홈 경기 시작 전 3층 콘코스에서 이뤄지는 '챔피언스 필드 퍼레이드' 등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팬들을 즐겁게 할 계획이다. 또 수도권(잠실, 고척, 문학, 수원) 원정경기에서도 팬들과 함께 신명나는 응원전을 펼칠 예정이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